

## 하와이 “인구문제 세미나”에

### 다녀와서



최 연 순

<연세간호대학부교수>

하와이 East-West Center의 Population Institute에서는 금년으로 5번째 Summer Session을 6월17일 부터 7월 13일 까지 갖게 되었다. 참석여부 통지를 2주일 전에야 받은 나는 여권 수속 및 준비에 정신없이 뛰어 다닌후, 6월 15일 오후 2시 김포공항을 떠나게 되었다. 세계의 인구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이 세미나는 해마다 열리며 금년에는 미국 및 태평양연안 각국과 동구의 유고까지 총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그중 간호학을 전공한 사람은 나 혼자 뿐이었으며 나머지는 인류학, 지질학, 인구학, 사회학, 의학등의 분야에서 참석한 분들이었다.

일일변경선 덕분에 15일 오후 2시 김포공항을 떠났건만 하와이에 도착해 보니 다시 15일 아침 8시 반쯤 이었다. 우거진 야자수를 바라보고 여기가 하와이로구나를 실감하며 수속을 마친후 집합장소에 모여 서로 소개들을 하였다. 마침 그곳에는 기운차게 돌아가는 파인애플 쥬스기계가 있었는데 누구나 무료이니 마셔보라는 안내인의 권에 따라 우리는 종이컵을 꺼내어 한컵 두컵 마셔 보았다. 그 시원하고 감미로운 맛이란! 지금도 그 시원한 「파인애플쥬스」의 맛을 생각하면 절로 싱그러워지며 입안에 침이 가득 돈다.

10시30분쯤 숙소에 도착하였다. 그곳은 East-West Center 학생들을 위한 남여 혼용 기숙사로서 특이하게 디자인 되어 있었다. 즉 승강기를 타고 원하는 층에 내리면 주방, 세탁실, T·V실, 서재등이 있고 한층을 내려가든가 올라가면 칩실이 나오게 되어 있었다. 나는 층을 올라가고 내려가는 소리를 잘못들어 분명히 내가 지정받은 곳에 온 것 같은데도 T·V와 의자 몇개뿐 잘 곳이 없어 한참 당황하였다. 마침 가톨릭의대의 멩광호 교수의 도움을 얻어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이 건물은 영친왕의 아드님이신 이구씨가 설계했다고 한다.

이곳의 학생들이나 젊은사람들은 모두 머리가 길고 떨어진 반바지를 입고 다녀 아주 무질서하고 버릇없게 보였다. 그러나 1개월이 다 되어갈 즈음에는 우리의 차림이 이방인같음을 느끼게 되었으며 또 그들의 생활은 매우 질서 정연함을 알게되었고 준법정신이 매우 철저함을 거듭거듭 느끼게 되었다. 정말 그들은 자유를 잘 구사하고 있었다.

East-West Center에는 주로 장학금을 얻어 공부하는 한국을 비롯한 태평양연안각국의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들의 열심

히 공부하는 모습, 그곳 학생들의 진지한 학구적태도, 일반인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사는 모습들은 매우 인상 깊었고 꼭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느꼈다. 또한 「세미나」에 참석한 Participants들도 모두 열심이므로 정신차리기 힘들 정도였다. 많은 다른 분야의 학자들과 같이 지내는 동안 우리 간호학이 여러 학문과의 관계가 너무 멀었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으며 주위 여러 학문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학문을 그들에게 소개시켜야 함은 큰 문제라 느꼈다.

나도 바쁜 일정이요 또한 그곳의 일상생활이 그토록 바빠 그곳에서 일하는 간호원들을 일일이 만나뵙지 못하고 전화로만 통화하였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고마운 일은 East-West Center Population Institute의 Director로 계신 조이제 박사가 한국에서 간 모든 Participant에게 응수한 대접을 해 주셨으며 또한 아무때나 싫다는 말씀없이 차편을 제공해 주신 일이다. 한국에서간 모든 Participant들이 서로 힘을 모아 이번 「세미나」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될을 고맙게 생각하며 것처럼 아름답고 깨끗한 하와이의 자연이 우리나라의 것이었으면 하는 영똥한 기대를 해보며 이 글을 끝맺는다.